

특별기고

김광석

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열흘 가는 꽃 없다더니 화려한 벚꽃 지는 것과 동시에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대엽풍란에서 난꽃이 활짝 폈다. 조그만 화원에서 만원의 거금을 들여 화분에 옮겨 심고 지켜보기를 한 달 가까이. 꽃대가 올라오기에 금방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향기 내뿜을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더디고 더디게 올라와 애간장을 녹이며 애를 태웠을까. 막상 꽃 피우고 나니 그 향기 예사롭지 않구나. 매콤한 난향에 날마다 난과 말 없는 대화를 나눈다. 때론 큼큼거리며 코로 향을 맡기도 하고, 금방 사라질까 몰라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기도 하고, 한 꽃대에서 나온 난꽃 다섯송이와 눈 마주치기도 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듯 내가 말하면 네가 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듣는 듯 서로 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며 서로가 서로를 읽는다.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렇듯 식물과의 말 없는 교감. 이런 것들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리더십 원칙, 경청 중요성 강조

‘이청득심’(以聽得心),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말, 참 좋다. 흔히 대화에서 경청(傾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 살펴보니 이청득심은 논어의 위정(爲政)편에서 유래한다고 전한다. 설에 의하면 중국의 노나라 왕이 바닷새를 데려와 술과 진미를 권하고 풍악을 울리고 무희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융숭한 대접을 하였건만, 바닷새는 이런 상황이

이청득심(以聽得心)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시간-

여리둥절하여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아 사흘 만에 죽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장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그와 관련된 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청득심의 자세는 오늘날에도 조직 관리나 인간관계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하여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경청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경청(Active Listening)은 단순한 듣기가 아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비는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하였고,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도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 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고래로부터 현재까지 말하기보다 듣기의 중요성을, 즉 경청의 자세를 고사성어나 연구 등을 통해 설화한 것이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구절의 한 대목으로 직역하면 ‘말의 귀를 스치는 동쪽 바람’으로 풀이되는데 이처럼 남의 비판이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독단과 독선에 갇혀 흘러들고 무시하여 크게는 나라를 망치거나 그르치거나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끼치는 군주나 리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많았는가? 그것은 결국 소통의 부재의 미미했음이라. 예컨대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입은 가운데 있으나 귀는 양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입이나 눈은 다물거나 감을 수 있으나 귀는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가. 보고 말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 말하되 들을 때는 두루 두루 살펴서 잘 들으라는 뜻 아니겠는가? 또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나,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그만큼 말하기

는 쉬우나 경청, 즉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기란 어렵다는 뜻이라.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소통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녕 불통의 시대인가? 소통의 시대인가? 소통(疏通)이란 막힌 것을 터버린다는 소(疏)와 사람 간의 연결을 뜻하는 통(通)의 개념을 합성한 것인데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선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존중·이해 바탕 상호작용

우리 경찰서에서도 ‘이청득심 -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소통 간담회를 한 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주로 아침 티타임 시간을 활용하여 서장과 각과 기능별 계, 팀으로 나누어 소통의 시간을 갖는 중이다. 이 루고자 하는 것 즉 장래 희망이나 꼭 하고픈 일부터 건의 사항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박한 이야기부터 내 집 마련, 해외여행, 체중 감량, 금연, 절주, 등산, 가족의 행복, 심지어 에베레스트 등정까지 각양각색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듣고 또 들려온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일환일 텐데 서로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자꾸 부딪치고 빠져들면 익숙해지고 정들기 마련이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 주눅 들어 피하면 멀어지는 것이니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부딪쳐 해결해 보자. 어떤 형태로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하여 이러한 과정의 끝에 경청 그리고 소통이 바탕이 된 긍정의 결과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행복 바이러스가 활짝 핀 난꽃의 매콤한 난향과 함께 우리 경찰서 전 직원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파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본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어록으로 갈무리하고자 한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어머니의 마음

없으면 작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귀국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는 편지를 받은 다음날 새벽부터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산에서 솔방울을 따서 모았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피아노 살 돈 400원을(1930년대 쌀 한 가마 13원) 아들에게 보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다.

“날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뉘시며 /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으려라”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변치 않는 것은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사랑이다. ‘부모은중경’을 보면,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적마다 서 말 석 되의 피를 흘리고, 아기를 기르면서 여덟 섬 너 말의 피를 먹인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빠는 집고 가뱌다고 했다.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는 고마운 분이시다.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훌륭한 인물은 반드시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놀라운 힘ियो 위대한 빛이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서 전통사회의 효(孝)가 무너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옛 시조에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를 다 하려라. 지나간 후면 애닦다 어이 하리”를 되새겨볼 때이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보금자리이다. 또한 모든 교육의 근본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과외학원에 보내고, 스마트폰에 매달려 사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올바른 가정교육을 배울 수가 없다. 더구나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소통이 단절된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대가 급변하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세상이 오염되면 어머니가 오염되고, 어머니가 오염되면 자녀가 병든다”는 말처럼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한 사연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설

세계시장 노크하는 벤처기업 지원해야

광주전남 지역 벤처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협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특히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여건이 열악한 형편으로 이 같은 활로 모색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광주전남 및 수도권 6개 벤처기업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캄 기술교류회’에 참석해 현지의 노동·교육·금융·대학 고위 관계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인구 1,700만 명의 젊은 국가로 아세안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중요한 투자처로 떠올랐다.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벤처기업들이 이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 한 것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벤처기업대표들은 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성과를 끌어냈다. 광주테크노파크 우수 사례인 창업기업 실증지원 사업과 현지 정부의 협업을 제안한 데 이어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과 자동차 진단 및 중고차 판매 플랫폼 전문기업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하기로 했다. 또 수처리 및 SI를 활용한 환경솔루션 기업, 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캄보디아에 본격 진출하면 적극적인 공유와 협업을 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과 캄보디아 기업들이 서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성과 있는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캄 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의 체계적인 조직 구성 및 플랫폼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번 지역 벤처기업협회의 캄보디아 방문은 짧은 일정에도 프놈펜 상권·시장조사, 산업·온라인 인프라, 문화, 음식, 물가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인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역 벤처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이 필수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지역대학 ‘글로벌 대학’ 도전을 응원한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글로벌 대학 30 사업’ 선정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8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글로벌 대학 30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학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과 20224년에 20곳을 선정했고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대학 지정의 마지막 기회인 데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송원대 등 8개 팀이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러 대학이 연합해 팀을 이뤄 신청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조선대는 지난해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 등 4개 대학과 연합대학을 구성했으나 올해는 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형 유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웰에이징 3대 특성과 교육 혁신, 글로벌 자화사를 통한 글로벌 확산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대와 호남대는 연합형 모델로 도전에 나섰다. 양 대학은 대표총장제 도입, 학사제도 표준화, 글로벌 통합본부 구성 등 혁신적이고 정교한 제도를 기획서에 담았다. 고급 서비스 인력 양성, 창조문화 허브 도시 광주 조성, 유학생 5,000명 유치를 통한 대학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친다. 광주여대는 2030 지역사회 상생 MAUM(마음) 돌봄 글로벌 HUB 대학을 목표로 정하고 단독 모델로 신청했다. 송원대는 철도 특성화 대학을 내세워 단독형 모델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가 초당대·목포과학대학과 연합 기조를 유지하며 지역 공공형 강소연합대학(UCC)이라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각 대학의 강점을 극대화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반산업을 살리고 미래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 대학들이 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기왕에 도전에 나선 지역 대학이 곧 있을 예비지정을 통과하고 더욱 철저한 준비로 9월에 있을 최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에세이

김한호

문학박사·수필가·문학평론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과 석가탄신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은 달이다. 그중에서도 아버이 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아버이 날 노래는 1938년 양주동 시에 이흥렬이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이 노래는 1956년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이후 1973년 ‘아버이 날’로 바뀐 지금까지 아버이 날 행사 때 부르는 가곡이다. 이흥렬은 일본 유학을 뒷바라지 해준 홀어머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작곡했다.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때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피아노가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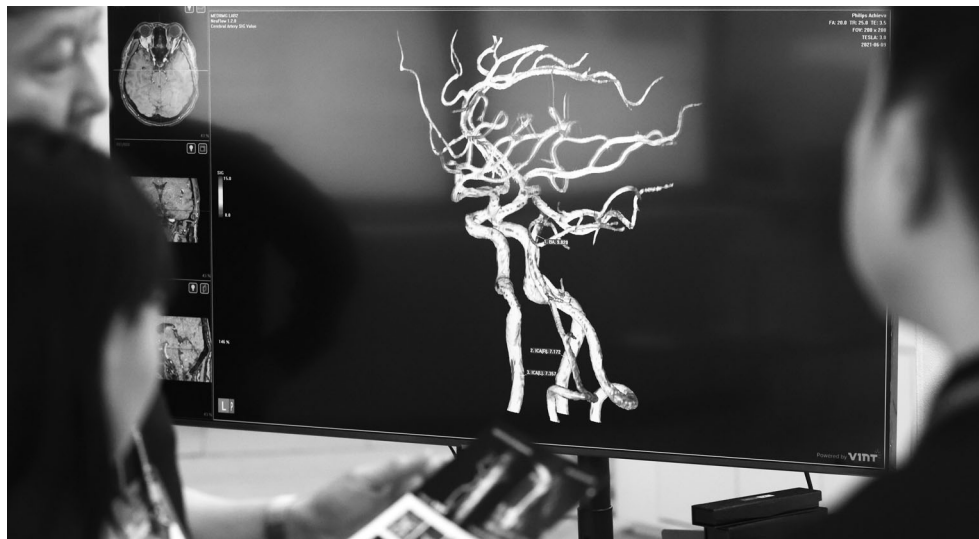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사진 속 세상



뇌혈관 판독하는 AI 프로그램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에서 관계자가 2D 흑백 MRA를 3D 컬러 데이터 기반 MRA로 판독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